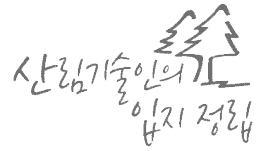




한국산림기술인회
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

보 도 자 료

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2쪽
배포일시	2026. 08. 24.(월)	담당부서	일반사업본부
담당부서장	전제은 본부장	담당자	노다운 사원

한국산림기술인회 전북지회 개소 ...

“ 지역 산림기술 전문성 · 소통 높인다 ”

- 전북 전주시에 지회 신설 · 개소식 ... 지역 유관기관 협력 등 -

-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전북 지역 산림기술 발전과 현장 소통을 위한 새 등지를 텃다.
- 기술인회(회장 진영문)는 24일 전북 전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‘전북지회 개소식’을 열었다.
- 이날 개소식에는 진영문 회장과 양정기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서부지방산림청 김인천 청장,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송경호 과장, 산림조합중앙회 전북 지역본부 이대성 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전북지회의 새 출발을 격려했다.
- 행사는 지회 설립 경과보고와 임명장 수여식으로 막을 올렸다. 이어 축사에 나선 주요 내빈들은 전북지회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, 지역 산림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.
-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북지회 개소를 축하하며, 지역 산림기술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- 앞으로 전북지회는 산림기술인 대상 전문교육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, 유관기관 협력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며 전북 지역 산림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- 양정기 전북지회장은 “전주에 새 등지를 튼 만큼, 지역 산림기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, 자질 향상과 권익 보호,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발로 뛰겠다” 는 포부를 밝혔다.
-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“전북지회 개소는 충청권에 이어 전북 지역의 산림 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” 이라며 “기술인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고 강조했다.
- 한편, 한국산림기술인회는 대전·세종·충남지회에 이어 이번 전북지회를 순차적으로 개소하며 지역 산림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

보도자료와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 **한국산림기술인회**
대외협력단 (☎ 1533-5160, 4번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
한국산림기술인회
Korea National Forestry Technicians Association